

작지만 큰 힘을 보여준 KWC 2021 수상 소규모 수입사

철저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공정한 심사를 강조하는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따라서 제품의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외부의 거센 입김에 흔들릴 일도 없다. 누구에게나 열린 경쟁의 장에서堂堂히 수상의 영광을 거머쥔 소규모 수입사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살짝 엿들어 보았다. 글·정리 박초롱 사진 장영수

안시와인



Interviewee
최정은 대표

1 우리 회사의 탄생 배경은

주식회사 안시와인을 2014년에 창립해 와인 전문 수입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수입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던 와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와인만 수입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에서 출발한 일이었다. 조직 생활을 할 때에는 회사가 원하는 제품 위주로 바인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의견을 내고 반영할 수 있는 새 회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안시와인은 시음 적기의 와인과 개성 있는 품종 및 지역 와인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의 철학은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 와인을 선택함으로써 양조자의 철학은 물론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까지 소개하는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소규모 수입사로 살아남는 전략이 있다면

오랜 세월 포도밭을 성실하게 지켜온 생산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와인을 개발해 함께 꾸준히 나누고 있다. 생존 전략이라기보다는 수입할 와인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안시와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선별 Exceptional Selection', '최상의 품질 Excellent Quality', '최고의 고객 서비스 Best Customer Service'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킨다. 오랜 시간 수입사에서 마케팅과 제품 소싱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린 노하우로 와인 산지를 직접 방문해 진정성 있는 생산자들의 와인을 선별해낸다. 그렇게 수입이 결정된 와인은 현지에서부터 365일 15°C 저온 컨테이너로 운송해 원산지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 운송 역시 100% 냉장차를 이용하며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문적이고 생생한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3 KWC 2021에서 수상한 우리 회사의 대표 아이템은

Langlois는 1885년부터 100년이 넘게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 온 루아르의 전통 가문이다. 이번 챌린지에서 실버 메달을 수상한 Langlois Réserve Brut는 포도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아예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2014년 빈티지는 생산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샴페인 브랜드 볼랭저가 투자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그만큼 이번 KWC 수상작은 프랑스에서 가장 품질 좋은 크레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와인이다.



루벡코리아



Interviewee
이승기 대표

1 우리 회사의 탄생 배경은

회사 설립 전, 진로의 와인 사업부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진로가 하이트에 매각되고 기존 와인 사업부 일이 정리되면서 미래를 고민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와인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고 2004년에 루벡코리아를 설립했다. 회사를 창립한 즈음에는 소규모 와인 회사들이 많지 않았고 대형 수입사의 포트폴리오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컨셉 설정이 중요했다. 인지도는 있지만, 생산량은 많지 않은 이탈리아 소지역(小地域)의 와인을 찾아 나섰다. 설립 초기의 컨셉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품질 좋은 이탈리아 와인을 많이 들여오고 있다.

2 소규모 수입사로 살아남는 전략이 있다면

작은 규모의 생산자일지라도 국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와인을 선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번 챌린지에서 수상한 Piaggia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소도시 가르미나노에 자리 잡은 생산자이다. 이 지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와인 생산지이며 지리적으로 피렌체와 가까워 피렌체 지역에 와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피렌체 귀족과 결혼한 프랑스 왕녀들의 입맛에 맞춰 프랑스 포도 품종을 이탈리아에 최초로 들여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 탓에 질 좋은 블렌드나 국제 품종 와인이 많이 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와인이 준비된 다음에 고려하는 것은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오랜 세월 와인 업계에 몸담았던 경험과 인맥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루벡코리아의 주된 판매 채널은 호텔, 레스토랑, B2C 거래를 중점적으로 하는 와인샵 등이다.



3 KWC 2021에서 수상한 우리 회사의 대표 아이템은

이번 KWC에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가르미나노 지역의 작은 생산자 Piaggia를 소개하고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 원래 섬유 사업을 했던 오너가 딸과 함께 와인너리를 사서 투자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와인너리이다. 골드 메달을 수상한 Piaggia Carmignano Riserva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과 국제 포도 품종의 블렌드가 조화로운 와인이다. 이탈리아 와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나친 산미를 강조하지 않는 적당한 균형이 매력적이다.

